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 13, No. 1, pp.141~151(2009)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의 바지 착용실태 및 선호도

한 승 희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A Study on the wearing practices and Preference for the Aged Female Arthritis Patients' Pants

Han, Seung-Hee
Lecturer, Dept. Clothing &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sist in the investigation into the pants wearing practices and preference with arthritis patient of aged female and the gathering of basic data to help to their clothing lifestyle.

For this study, personal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124 arthritis patients of aged female over 65 year old and data analysis were done with SPS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that on pants wearing practices with the subjects of aged female arthritis patient showed that many persons experience inconvenience for both knees and the wearing of knee protectors which use a purpose of a reducing pain such as they feel inconvenience of knee showed a high rate of 79.8% during winter. They purchased the pants with much space in the knee part or span trousers in consideration of knee protector wearing. When they purchase the pants, they attached great importance to the convenience or activities during their wearing period, prices, and the pants which were wide at the thigh, narrow at the pants hole, hanging down to the anklebones, and setting over the waistline as for the pants' waist position. The arthritis patients who felt uncomfortable at knees paid attention to the excellent materials at keeping warmth and with good flexibility.

Key Words : arthritis patient(관절염질환자), knee(무릎), pants(바지), wearing practices (착용실태), preference(선호도)

Corresponding author; Han, Seung-Hee, Tel.+82-70-7527-3770
E-mail: woohee92@hanmail.net

Ⅰ. 서 론

현재의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여러 나라들보다 짧은 시간 안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이처럼 고령화 되면서 만성질환 유병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45세 이상에서 관절염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만성질환 중 1위도 관절염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1] 이러한 만성질환은 노인들의 일상생활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도록 만들고 있으며, 점점 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처럼 노인들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만성질환 및 장애의 출현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노인의복에 대한 연구는 건강한 노인들의 의생활실태 조사와 이들을 위한 디자인 개발위주의 연구만이 있으며, 소수의 기능복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편마비 장애가 있는 노인[2], 와상노인[3,4,5,6], 치매노인[7] 등에 대한 환자복 중심의 성능분석 및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조사대상자가 대개 타인의 도움으로 의생활을 영위하는 질환자들이기 때문에 기능성검사 역시 이들의 의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 조사된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관절염질환자들이 요구하는 의복은 착탈의시 통증을 경감시키면서도 스스로 의복을 입고 벗을 수 있고, 건강한 노인들의 의복과 디자인상의 차이가 없는 의복임을 감안할 때(한승희, 2008)[8] 이들을 위한 의복연구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주로 착용하고 있는 바지의 구매행동, 기능적인 디테일, 선호하는 소재, 디자인, 요구사항을 알아 그들의 의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노년 여성 관절염질환자의 바지착용실태 및 구매행동에 대하여 알아보고 둘째, 무릎보호대의 착용과 선호하는 바지 유형을 알아보는데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많은 노인 인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노년장애를 겪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보행, 착탈의, 식사, 배뇨, 목욕 등의 일상 동작이 어려워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며,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신경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게다가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회복될 수 없는 병리적 변화가 생기고 재활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만성질환자는 그들의 건강문제가 통제는 되지만 완치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일평생 지니게 된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는 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호흡기계 질환 등이 있는데 최근에 관절염은 다른 근골격계 질환과 더불어 성인에게 나타나는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유향, 1992)[9] 보건복지부(2005)[10]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노인의 90.9%가 본인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절염을 포함한 만성질환자 노인은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을 가장 힘든 일로 여기고 있었다.

만성질환 환자들 중 특히 침상노인의 의복문제는 침상노인을 간호하는 가족이나 간병인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들의 입장도 고려한 의복설계가 필요하다. 김혜경(1999)[11]은 침상 노인용 의복의 경우 의복 착탈에 대한 문제점, 착의시 불쾌감에 대한 문제점, 체온조절이 쉬운 의료개발의 문제점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증의 환자인 경우 간병인이나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의복 등이 필요하며, 스스로 의복을 입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옷을 갈아입히기 쉽도록 뒤트임이 있는 의복이 좋다고 하였다. 홍나영(1999)[12]은 서울과 경인지역에 위치한 노인 전문 요양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간병하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간병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실태와 의복요구를 조사하였다. 노인전문 요양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복은 상하분리형 일반환의이며, 간병인들 대부분이 기능성 의복이 필요하며, 소재에게 가장 요구되는 기능은 쾌적감이라고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해 상의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형에 앞 전체트임, 커프스 처리가 되지 않은 셔츠소매에 7부정도의 길이, 패스너는 큰 단추, 하의는 트임 없이 전체를 고무줄 처리한 허리, 발목길이, 패스너는 고무줄이나 끈매기라고 응답하였다. 김순분(1991)[13]은 편마비 노인의 운동능력과 의복의 디자인 및 착탈동작을 연구한 결과 편마비 노인의 정상수지력이 건강한 노인의 수지력에 비해 많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착탈은 세면 및 몸단장 다음으로 자립이 어려운 문제였으며 착탈의 동작중 넥타이매기 가장 어렵고, 터틀넥크, 긴소매, 커프스 단추여밈, 끈매기여밈, 열린지퍼여밈, 바지허리 전체 벨트형 등의 디자인 역시 착탈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다. 류은정 등(2006)[14]도 치매환자들의 의복행동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치매정도가 심할수록 일상생활동작의 자립도가 낮고, 그 중에서 '세면과 목욕 및 몸단장하기'와 '옷 입고 벗기'의 자립도가 낮으므로, 치매환자의 착탈의 행동은 간병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만성질환 환자들의 의복용 소재에 대한 선행연구로 홍나영·지윤영(2000)[15]은 쾌적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와상노인을 위한 소재로는 면100%가 좋고, 동작이 자유로운 치매노인을 위한 소재로는 면/폴리우레탄의 비율이 97.1%:2.3%가 신축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비교적 높아 좋다고 하였다. 홍나영(1999)[16]은 간병인의 74%가 환자의 의복용 소재로 쾌적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땀을 잘 흡수하고, 정전기나 보푸라기의 발생이 없고, 촉감이 부드럽고, 바람이 잘 통하고, 가볍고, 세탁 후 줄어들지 않는 소재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최혜선(2002)[17]은 와병중인 노인들에게는 신체표면의 오염, 피부에 배뇨물 흡착, 요실금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리적인 쾌적성과 안정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고, 신경통질환이 있는 노인에게는 정신성 발한이 많으므로 습윤이나 발한에 대한 대응책으로 흡습성과 흡수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위한 의복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소재는 주로 면100%와 면/폴리우레탄 혼방 직물이다. 특히 거동을 거의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주로 면100%가, 편마비환자나 관절염질환자처럼 거동은 할 수는 있으나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환자의 경우 주로 면과 폴리우레탄이 혼방된 직물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 중 한가지인 관절염은 주로 체중부하 관절을 침범하여 통증과 기능장애를 초래하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상황은 노인들이 주위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들에게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동시에 이들이 사회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김문호, 2004)[18] Dallas와 White(1982)[19]는 많은 동작들이 필요한 옷입기 동작은 관절염질환자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수행불가능 것 일수도 있다고 하였다. 옷입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어깨, 팔꿈치, 손목, 손의 통증이었고, 둘째로 팔다리에 기력이 없는 것, 셋째로 영구적으로 관절이 변형된 것이었다. Naomi Reich와 Patricia Otten(1991)[20]은 관절염질환자 중 50%가 스스로 옷을 입을 때 통증을 동반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5%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한승희(2008)[21]는 신체 중 가장 불편해하는 부위를 무릎이라고 응답한 관절염질환자는 바지와 팬티의 착탈의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손가락부위가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관절염질환자는 바지와 셔츠/블라우스의 착탈의를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특히 하의류 중 바지통에 다리 끼우고 뺄 때와 바지를 엉덩이 위로 올릴 때의 항목에서는 통증도 함께 동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관절염환자들은 이러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22]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선행연구[23]에 따른 관절염질환자의 의복불편조사 결과 관절염질환자 중 노년여성이 의복 착탈행동을 힘들게 여겼으며 특히 무릎부위를 가장 불편해 하면서 바지의 착탈에 통증과 불편함을 같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를 대상으로 바지 착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는 관절염 진단을 받고 병원을 통원 중인 65세 이상의 노년여성으로, 조사대상자 총 124명 중 65세~69세 73.4%, 70세 이상이 26.6% 이었다.

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대상자가 노년인 점을 감안하여 문항을 읽어 주면서 체크하는 직접면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6년 7월 20일~2006년 7월 25일까지 K종합병원 관절·류마티스센터 로비에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2006년 8월 10일 ~ 2006년 8월 31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150부를 수집하고 내용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124부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본 설문은 바지의 일반적 착용, 구매행동, 선호도 및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이혜진(2002)[24]의 연구를 참고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일반적 바지 착용 및 구매행동에 관한 내용 5문항, 바지 구매 기준의 중요도에 관한 내용 9문항, 무릎보호대 관련 바지착용실태에 관한 내용 6문항, 선호하는 바지 디자인에 관한 내용 4문항, 선호하는 소재에 관한 내용 10문항이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노년이므로 바지에 대한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자가 항목별로 적어 넣는 방법으로 면접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를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양쪽 무릎 모두가 불편한 사람이 42.7%, 오른쪽 무릎이 불편한 사람이 39.5%, 왼쪽무릎이 불편한 사람이 17.1%이다. 이는 관절염의 경우 관절이 대칭적으로 아프며, 특히 자주 사용하는 오른쪽 무릎의 발병이 높다고 한 김문호(2004)[2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무릎 외 하반신 불편부위로는 발목과 발가락이 33.9%로 많았으며, 고관절은 14.5%로 조사대상자의 총 48.4%가 두 군데 이상의 불편한 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릎이 불편한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침대나 소파에 앉거나(33.9%) 방바닥에 앉아서 바지를 입는 경우(28.2%)가 총 62.1%로 나타나 서서 입는 경우(37.9%)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따라서 바지를 입고 벗는 동작이 앉아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 이들의 의복을 개발함에 있어서 이러한 동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항목		N(%)
불편한 무릎	양쪽 무릎	53(42.7)
	오른쪽 무릎	49(39.5)
	왼쪽 무릎	22(17.1)
무릎 외 하반신 불편부위	없음	64(51.6)
	발목, 발가락	42(33.9)
	고관절	18(14.5)
바지 입는 자세	아무것도 기대지 않고 서서 입는다	45(36.3)
	벽에 의지해서 서서 입는다	2(1.6)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입는다	42(33.9)
	방바닥에 앉아서 입는다	35(28.2)
합 계		124(100.0)

2. 바지 착용실태 및 구매행동

1) 바지 착용 및 구매행동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의 바지 착용 및 구매행동은 <표 2>과 같다.

바지 착용은 매일 입는다가 61.3%, 1주일에 4~5일정도 입는다가 35.5%로 나타나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바지를 주로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노인들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복을 알아본 연구결과 봄/여름은 블라우스, 셔츠, T셔츠와 바지, 가을/겨울에는 스웨터나 조끼와 바지 등 활동적인 의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고 있다(ユニバーサルファッション, 2005)[26]. 특히, 아직도 바지 구매는 자신이 직접 한다는 응답이 84.7%로 압도적이었으나 착용을 안 해보고 구입하는 비율도 2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 구매치수는 본인의 허리치수보다 한 치수나 두 치수 큰 바지를 산다는 응답이 61.3%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전체적으로 편안해서, 입고 벗기 편안해서, 배가 편안해서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편안함 때문에 본인의 허리치수보다 한 두 치수 큰 바지를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0대의 여성은 바지치수 선택 시 기준으로 삼는 자신의 신체부위를 엉덩이둘레(41.5%), 허리둘레(31.4%)라고 하였으며(김세영, 2005)[27], 50~60대는 바지치수를 '보통으로 입는다'가 가장 많았으나 70세 이상에서는 '크게 입는다'가 63.1%로 가장 많다고 하였다(김경아, 1995)[28].

즉, 노년여성들은 가령에 의한 복부비만 및 전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허리둘레보다 더 큰 치수를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바지 착용 및 구매행동

	내 용	N(%)
바지 착용 횟수	매일	76(61.3)
	1주일에 1일 정도	0(0)·
	1주일에 2~3일 정도	4(3.2)
	1주일에 4~5일 정도	44(35.5)
	총 계	124(100.0)
바지 구매치수	본인의 허리에 맞는 바지	48(38.7)
	본인 허리치수보다 한 치수 큰 바지	67(54.0)
	본인 허리치수보다 두 치수 큰 바지	9(7.3)
	총 계	124(100.0)
큰 치수 구입하는 이유	전체적으로 편안해서	58(76.3)
	입고 벗기 편안해서	10(13.2)
	배가 편안해서	8(10.5)
	총 계	76(100.0)
바지 구매자	자신이 직접	105(84.7)
	가족	19(15.3)
	총 계	124(100.0)
착용 해본 후 구매	그렇다	97(78.2)
	아니다	27(21.8)
	총 계	124(100.0)

2) 바지 구매 기준

무릎이 불편한 노년여성 관절염 질환자가 바지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바지 구매 기준을 5점 만점 척도로 살펴보면 바지를 입고 있는 동안의 편안함, 즉 활동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격을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입고 벗기의 쉬움도 중요하게 여겼다. 여혜린·권영숙(2005)[29]은 노년 여성은 '디자인'(47.5%)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그 다음이 '사이즈' (33.3%)를 고려하고 '착용감 및 맞음새'와 '가격'은 고려정도가 낮게 나타나 일반 노년여성들과 노년여성관절염질환자는 의복을 구매함에 있어서 그 기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의복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편안함과 입고 벗기의 쉬움에 주의를 기울여 관절염질환자들이 원하는 바지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무릎보호대 착용실태

일반 관절염질환자의 의복불편조사에서 무릎보호대의 착용으로 인한 의복수선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들이 어느 정도로 무릎보호대를 착용하며 의복과의 상관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계절별 무릎보호대 착용횟수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계절별 무릎보호대 착용에 대해 23.4%가 모든 계절에서 1주일에 1회 정도는 무릎보호대를 착용한다고 하였으며, 겨울에는 79.8%가 1주일에 적어도 1일 정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릎보호대가 관절염질환자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릎보호대는 여름에 착용률이 가장 낮으며, 겨울에 착용률이 가장 높아 계절의 특성이 착용정도를 크게 좌우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표 3> 바지 구매 기준의 중요도

바지 구매 기준	중요도	
	M.	S.D
바지 소재의 디자인(색상, 무늬 등)	3.54	0.55
기타 바지 디자인(포켓, 지퍼, 고무줄 등)	3.54	0.74
바지 허리높이	3.31	0.66
바지 길이	3.39	0.76
바지 통	3.60	0.75
바지 맞음새(외관)	3.65	0.66
바지 가격	4.05	0.62
바지 입고 있는 동안의 편안함(활동성)	4.28	0.55
바지 입고 벗기의 쉬움	4.00	0.79

<표 4> 계절별 무릎보호대 착용정도

N(%)

계절	매일	1주일에 1일 정도	1주일에 2~3일 정도	1주일에 4~5일 정도	착용안함
봄/가을	·	29(23.4)	45(36.3)	2(1.6)	48(38.7)
여름	·	29(23.4)	15(12.1)	·	80(64.5)
겨울	·	29(23.4)	49(39.5)	21(16.9)	25(20.2)

무릎보호대의 종류를 다르게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한 종류의 무릎보호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높은 무릎보호대 착용률(79.8%)을 보이고 있으므로 바지 원형 제작시 무릎보호대 착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무릎보호대 선호디자인

무릎보호대로 어떤 디자인을 선호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5%가 입는 원통형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무릎을 둘러서 감싸는 무릎보호대를 선호하는 비율도 17.7%에 달했다.<표5>

3) 무릎보호대 착용을 감안한 바지구매 경험

무릎보호대 착용을 감안하여 바지를 구매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4.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무릎부분의 여유량이 넓은 바지(83.3%), 스판바지(16.7%)를 구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바지원형 개발시 무릎보호대의 착용을 감안하여 무릎부위와 바지부리부위의 여유량을 설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 바지 특성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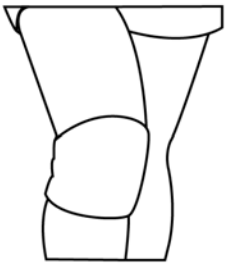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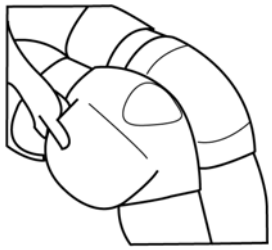
선호하는 바지특성은 바지형태와 바지소재에 관해서 알아보았다.

1) 바지 형태 선호도

선호하는 바지형태는 바지허리위치 및 여밈형태와 바지통, 바지길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선호하는 바지허리 위치는 허리둘레 위가 75.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노년 여성의

<표 5> 무릎보호대 선호디자인

	① 입는 원통형	② 무릎부분이 개방된 원통형	③ 무릎을 둘러서 감싸는 형
무릎보호대 유형			
N(%)	70(56.5)	7(5.6)	22(17.7)

* 미착용 : 25(20.2)

<표 6> 무릎보호대 착용을 감안한 바지구매 경험

N(%)

	내용	N(%)
무릎보호대 착용을 감안한 바지구매 경험	있다	30(24.2)
	없다	94(75.8)
	총 계	124(100.0)
있는 경우, 구매한 바지 종류	무릎부분의 여유량이 넓은 바지	25(83.3)
	스판 바지	5(16.7)
	총 계	30(100.0)

체형적 특성인 복부부분의 비만으로 인하여 허리둘레의 의미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현상이라고 보여 진다.

선호하는 바지여밈 형태는 지퍼와 고리만 달린 허리가 78명(62.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체 고무줄 허리가 25명(20.2%)를 차지하였다. 지퍼와 옆부분 고무줄허리는 14명(11.3%), 지퍼와 뒷부분 고무줄 허리는 7명(5.6%)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바지통은 허벅지부분은 넓고 바짓부리는 좁은 바지(70.2%)로 나타났으나(표 27), 임재린(2005)[30]의 연구에서는 일자형바지가 54.3%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김경아(1995)[31]의 연구에서도 일자바지와 통이 넓은 바지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노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활동에 불편함을 피하고 동시에 신체의 곡면을 덮기 위하여 바지통이 넓거나 일자바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상이한 이유는 바지통에 여유가 많으면 관절염이 심한 노년여성은 건강한 노년여성보다 활동에 불편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로 좁아지는 형의 바지는 날씬해 보인다는 이유에서 중년여성들도 가장 선호(80.3%)하였는데(김세영, 2005)[32], 비만체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관절염질환자들의 심리도 그와 같다고 여겨진다.

한편, 건강·생활과학연구소(1999)[33]에서는 노년기의 신체변화현상에 따른 의복선택에서 배가 나온 체형 즉 비만체형은 풍성한 스타일의 페그톱 팬츠(pegtop

<표 7> 바지 형태 선호도

N(%)

		N(%)		
허리 위치	허리둘레 위			94(75.8)
	허리둘레			28(22.6)
	배꼽			2(1.6)
	배꼽 밑			0(0.0)
	총계			124(100.0)
바지여밈	지퍼와 고리			78(62.9)
	전체 고무줄			25(20.2)
	지퍼와 옆부분 고무줄			14(11.3)
	지퍼와 뒷부분 고무줄			7(5.6)
	총계			124(100.0)
바지통	일자형			33(26.6)
	통이 전체적으로 넓은 바지			4(3.2)
	허벅지 부분은 넓은 바짓부리는 좁은 바지			87(70.2)
	총계			124(100.0)
바지길이		봄/가을	여름	겨울
	복사뼈 길이	103(83.1)	1(0.8)	124(100.0)
	7부 길이	21(16.9)	34(27.4)	0(0.0)
	무릎 밑 길이	0(0.0)	84(67.7)	0(0.0)
	무릎 위 길이	0(0.0)	5(4.0)	0(0.0)
	총계			124(100.0)

pants)나 배기 팬츠(baggy pants) 등이 좋다고 하였으나 이는 신체적 결함만을 감추려 하고 기능적인 면을 생각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선호하는 바지길이는 봄/가을(83.1%)과 겨울(100.0%)은 복사뼈길이의 바지를, 여름에는 무릎 밑 길이(67.7%)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린(2005)[34]의 결과에서도 발목정도가 62.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7~8부 정도가 22.3%, 무릎정도가 10.8%였고, 무릎아래(4.3%)는 거의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바지 소재 선호도

바지 소재 선호도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무릎이 불편한 관절염질환자는 보온성이 뛰어난 소재, 신축성이 좋은 소재, 가벼운 소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용 소재로 국한하여 소재의 선택기준을 질문한 여혜린 · 권영숙(2005)[35]은 하의에 있어서 신축성(27.1%)과 보온성(22.8%)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였으며, 임재린(2005)[36]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년기 여성이 선호하는 소재로는 신축성 있는 것 56.4%, 부드러운 것 31.4%의 순으로 나타나 무릎이 불편한 관절염질환자는 일반 노인보다 신체보호를 위한 보온성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의 1차 설문에서 관절염질환자의 의복 요구점에서도 신축성소재와 경량소재의 요구점이 있었으므로 의복 제작 시 소재부분에 반영해야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5. 바지 부위별 불편사항

바지 부위별 불편사항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바지의 부위별 불편사항에 대한 주관적 응답에서는 밑위길이에 대한 불편함과 요구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둘레부위의 부족으로 복부부분의 둘레부위에 대한 불편함이 컸다.

<표 8> 바지소재 선호도

바지 소재	선호도	
	M.	S.D
신축성이 좋은 소재	4.10	0.67
가벼운 소재	4.02	0.52
구김이 적은 소재	3.93	0.76
질기고 내구성이 좋은 소재	3.67	0.66
촉감이 좋은 소재	3.38	0.68
땀의 흡수가 뛰어난 소재	3.56	0.67
통기성이 좋은 소재	3.38	0.63
세탁이 용이한 소재	3.90	0.71
보온성이 뛰어난 소재	4.33	0.66

<표 9> 바지 부위별 불편사항

N=124;(다중응답)

	불편 사항	N(%)
밑위길이	짧거나 길어 불편	48(29.1)
둘레	허리둘레와 다른 둘레 맞추기가 어려움	42(25.5)
	엉덩이둘레가 크거나 작아서 불편	31(18.8)
	배둘레 부족	28(17.0)
디테일	지퍼가 안에 숨어있고 작을 때 불편	5(3.0)
	훅이 잘 풀어짐	7(4.2)
	허리고리 때문에 옆구리 통증	4(2.4)
총 계		165(100.0)

즉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들은 앉아있을 때의 복부부분의 여유량과 당김이 없는 밑위길이를 요구하고 있지만 복부부분의 둘레항목들은 자신이 직접 구매하면서 충분히 여유있는 치수를 구입하고 있어서 밑위길이에 대한 불편함 보다 적은 응답률을 보였으리라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를 대상으로 바지 착용실태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그들의 의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은 관절염을 진단받은 65세 이상의 여성으로 총 124부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양쪽 무릎이 모두 불편한 비율이 높았으며, 그들은 침대나 소파에 앉거나 방바닥에 앉아서 바지를 입고 벗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바지의 착용률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편안하다'라는 이유로 본인의 허리보다 한 치수 큰 바지를 구매하며 자신이 직접 입어본 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바지를 입고 있는 동안의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 입고 벗기의 쉬움을 꼽았다.

셋째, 무릎불편에 따른 무릎보호대의 착용률(79.8%)이 높았으며, 24.2%는 무릎보호대의 착용을 감안하여 무릎부분의 여유량이 넓은 바지(83.3%)와 스판바지(16.7%)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는 바지형태 선호도에서 허리둘레위의 허리위치, 지퍼와 고리로 된 바지여밈, 허벅지 부분은 넓고 바짓부리는 좁은 바지형태와 바지길이로는 봄과 가을·겨울에는 복사뼈길이가 여름에는 무릎 밑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소재로는 보온성이 뛰어나고 신축성이 좋으면서 가벼운 소재로 나타났다.

다섯째, 바지 부위별 불편함으로는 밑위길이와 복부부분의 둘레부위에 대한 불편함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즉, 노년여성 관절염질환자를 위한 바지패턴 설계시에는 앉아서 착탈의를 행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허리 개구부 부분의 적절한 여유량과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무릎부위의 무릎 보호대 착용을 감안한 무릎부분의 여유량을 고려해야하며, 밑위길이와 복부부분의 충분한 여유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도 특히 보온성에 중점을 두고 신축성, 경량소재를 사용한 의복 제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스스로 병원을 통원하고 있는 관절염질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거동이 불편한 관절염질환자들의 의복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의복행동, 디자인, 패턴연구가 진행되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편)(2006), *2005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pp.44-73.
2) 김순분(1991), "거동불편 노인의 가족관계와 의식생활에 관란연구-(제1보) 편마비 노인의 운동능력 특성과 의생활", *대한가정학회지, 29(2),* pp.17-34.
3) 홍나영(1999),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기능성 의복 연구-서울, 경인지역 노인 전문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2),* pp.289-303.
4) 홍나영 · 지윤영(2000),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기능성 의복연구(2)-서울, 경인지역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6),* pp.899-914.
5) 문은희(2003), "침상 노인 환자복의 현황분석 및 디자인 제안",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최혜선(2002), “노인과 의복”, *한국생활환경학회지, 9(1),* pp.1-7.
7) 류은정 外(2006), “치매환자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8),* pp.1253-1262.
8) 한승희(2008), “여성관절염질환자의 의복개선을 위한 의복불편정도에 관한연구”, *패션비즈니스, 12(5),* pp.111-125.
9) 조유향(1992), *노인간호*, 현문사, pp.17-25.
10) 보건복지부(2005), *2004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요구조사 결과 발표*, pp.15-16.
11) 김혜경(1999), *신체장애와 특수의복*, 교문사, pp.91-94.
12) 홍나영, op.cit., pp.289-303.
13) 김순분, op.cit., pp.17-34.
14) 류은정 外, op.cit., pp.1253-1262.
15) 홍나영 · 지윤영, op.cit., pp.899-914.
16) 홍나영, op.cit., pp.289-303.
17) 최혜선, op.cit., pp.1-7.
18) 김문호(2004), *스스로하는 관절염치료*, 삼호미디어, pp.34-59.
19) Dallas M. J. · White, L. W.(1982), “Clothing Fasteners for Women with Arthritis”.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6(8).* pp.515-518.
20) Naomi Reich · Patricia Otten,(1991), “Clothing and dressing needs of people with arthriti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4),* pp.34-40.
21) 한승희, op.cit., pp.115-120.
22) Greenwald, A. E.,Bagley, A. M.,France, E. P. & Paulos, L. E. (1995), "A Biomechanical and Clinical Evaluation of a Patellofemoral Knee Brace", *Clinical orthopaedics and related research, 324,* pp.187-195.
23) 한승희, op.cit., pp.115-123.
24) 이혜진(2002), “운전자세에 적합한 기능적 슬랙스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2-97.
25) 김문호, op.cit., pp.34-59.
26) 田中直人, 見寺貞子(2005), *ユニバーサルファッション,* 東京;中央法規出版, p.60.
27) 김세영(2005), “50대 여성이 선호하는 바지 여유량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6.
28) 김경아(1995), "노년기 여성의 체형별 바지구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29) 여혜린 · 권영숙(2005), “노년기 의생활 실태 조사” *한국의류학회지, 29(1),* pp.177-188.
30) 임재린(2005), “노년기 여성을 위한 기능성 의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7.
31) 김경아, op.cit., pp.26-27.
32) 김세영, op.cit., pp.36-38.
33) 건강생활과학연구소(1999), *현대 노년학*,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pp.258-259.
34) 임재린, op.cit., pp.47-48.
35) 여혜린 · 권영숙, op.cit., pp.177-188.
36) 임재린, op.cit., p.56.

접수일(2008년 10월 6일)
수정일(1차 : 2008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24일)